



금속민투위

민주노조 재건!
노동탄압 분쇄!
현장권력 쟁취!
20년 임투 승리!
고용안정 쟁취!

■ 발행인 : 의장 김 태 곤 ■ 발행처 : 선전실(29-15호) ■ 게시기간 : 09월 26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 대표 남 정 일

사측 어렵다며 고위임원들은 고액 보수지급 현대차 발전의 주역인 조합원은 동결

사측! 어렵다면서 고위임원들은 고액 보수, 조합원은 동결..

성명	직위	보수총액
정의선	수석 부회장	1,575
정몽구	회장(병원입원)	1,512
알버트 비어만	사장	1,067
윤여철	부회장	634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개인과 가족의 방역을 통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장 가동률을 보인 현대차조합원들의 노고에는 “임금동결” 제시하고 고위임원들은 고액의 보수를 챙기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8대 집행부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실물경제인 시장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임금동결이 아닌 기본급 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사측, 해고자복직, 손배가압류, 시니어촉탁직문제 진정성을 보여라

☐ 해고자 원직복직과 손배 가압류 철회

사측이 법적 판결 운운하지만 이미 법적문제에도 복직해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동하는 선례가 있기에 변명밖에 안 된다. 또 손·배 가압류 역시 당사자들은 이미 정신적 고통과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른 지경이다. 이제 대승적 결단으로 해고자 원직복직 및 모든 손·배 가압류를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 시니어 촉탁제도 확대 및 본인그룹 근무

7대집행부가 정년연장을 요구하다 한발 양보해 시니어 촉탁제도를 합의하고 시행하였다. 8대 임원선거 당시 철폐공약도 있었지만 시니어 촉탁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요구안을 만들어 사측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울산과 판매, 정비위원회를 갈라치기하듯 생산공장 그리고 직접생산 부서만 시니어촉탁제도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8대 집행부는 시니어 촉탁제도 확대 및 본인 그룹 근무 요구가 판매, 정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생산 부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니어 촉탁 제도 원안 쟁취를 해야 할 것이다.